

기 타 인 물 편

[1] 김 옥 균

이조 말엽에 태어난 비운의 혁명가 김옥균!

그는 폭풍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조국을 구하고자 개화 독립당을 위하여 민씨 정권과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벌이다가 아깝게도 젊은 나이에 조국도 아닌 머나먼 상하이에서 자객의 흉탄에 쓰러졌다.

그는 1851년 2월 23일 철종임금 2년에 태어나셨다.

그의 아버지는 김병태이며 어머니는 송씨였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총명함이 널리 퍼져 그 당시 세도가였던 김병기의 양자가 되었다.

김옥균에 대한 일화 하나를 들기로 하겠다.

그는 밤에만 글을 읽고 낮에는 자연을 벗삼아 돌아다니면서 수양을 쌓는데 정력을 다 쏟았다. 그래서 강릉에 살고 있는 양반 자제들이 놀기만 하는 부사의 아들이더라는 비웃음을 받았다. 그러던 중에 강릉에 있는 오죽헌에서 옥균과 다른 양반이 결과 재능이 뛰어난 것을 알게되자 부사의 아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책을 많이 읽는 어른보다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들 탄복하며 옥균의 시와 서화는 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는 칭찬이 광동일대 선비사이에 퍼졌다.

김병기의 양자였던 그의 양부는 훌륭한 정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우쳐 후에 가서 훌륭한 애국자가 됐다.

"이 세상에 뛰어난 천재로 태어나 가장 어려울 때를 만났는데 뛰어난 공적도 없이 슬픈 죽음만 남았으니, 옥균이여....."

1914년 충청남도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둔덕에 시체는 갈기갈기 찢기워지고 머리카락만 묻히던 날, 그의 친구 박영호는 추도사를 읽다가 그만 목이 메어 울어 버리는 것이었다.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개화를 부르짖던 옥균이 1884년 혁명에 실패하자 그의 아버지는 천안 감옥에서 사약을 마셔야 했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음독 자살을 하였으며 동생은 서울 감옥에서 옥사하고 아내는 옥천의 관비로 하천되어 고생하다 죽어야 했다.

세월이 바뀌어 새로운 문명이 조석으로 변할 때 우리 나라의 약함을 틈타 강한 나라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며 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김옥균과 그 동지들은 혁명에 실패하자 슬픈 종말을 맞이해야만 했다.

그는 혁명에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했었다.

예의사상에 밝았던 우리 나라 선비들은 한 번 약속을 하면 몸을 바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나이의 도리라고 생각했을 때로서 김옥균도 일본 사람들을 우리 나라의 선비처럼 믿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우리 나라보다 개화된 일본이라 믿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원래가 섬나라 사람들은 도량이 좁고 간사하다는 말도 있듯이 그들은 처음부터 한국을 침략할 목적이었으므로 그까짓 정치가 한사람과의 약속같은 건 잠꼬대 생각했었다.

약속만을 철석같이 믿었던 김옥균은 일본에 망명하고서도 그들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를 개화시키고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튼튼하고 건전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호소도 해보고 분노도해 보았지만 그들은 아랑곳없이 이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침략의 손길로 삼켜버리고 말았다.

어리석은 이 나라의 정치가들은 그를 죽여 없애 버리려고 계속 자객을 보내고, 그는 타국에서 쫓기는 몸으로 방랑을 해야만 했다.

일본에서도 여기저기로 음리 표박생활을 해야만 했고 끝내는 그들은 믿을 수 없이 중국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러 건너 갔다가 끝내 이 나라에서 보낸 자객의 흉탄에 쓰러진 김옥균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속에 묻혀간 정치가였다.

그는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광정에서 1851년에 태어났다.

물맑고 산수좋은 공주땅 산너머 천안군 광덕면에서 잠시 곳을 읽었고 서울 북촌 화개동에 사는 김병기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의 친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으나 그의 양아버지는 권세 좋은 조정의 종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새로운 글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학문을 습

득하게 된다.

그는 열살 때 강원도 강릉부사로 부임하는 양아버지를 따라 강릉에 가서 그곳 송남서원에서 글을 읽으며 유명한 율곡선생의 유품을 구경하기도 했다.

무엇을 보면 판단이 빠르고 예민했던 그는 열여섯살 때 서울로 돌아온다.

이 때가 바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에 처음 쳐들온 온 해이다.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상 판단에 지나치게 고지식하다고 생각도 해왔다.

그는 서슬이 시퍼랬던 세도가 조대비의 친조카인 조성하의 어머니사 그의 아주머니였던 관계로 조대비와 인연을 맺게 되어 그로부터 귀족사회에서 장래가 총망되는 젊은이로 각광을 받게 된다.

그는 스물두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문이 열렸고 관직에 있으면서 풍파 많은 조구의 실정을 차츰 알기 시작한다.

나라의 운명이 호롱불처럼 깜박거릴 때 그는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았다.

첫째로 우리 나라는 힘이 약하에 때문에 강한 여러 나라가 넘겨다 본다는 것과 우리 나라도 힘이 강한 나라로 등장하려면 우선 백성을 깨우치는 교육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거리에 나가면 하얀 바지저고리로 초라하기만한 백성들은 항시 세상의 변화도 모르고 산다는 숙명속에 어쩔수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였다.

남의 나라에 들어온 외국 군대들은 새로운 무기를 자랑하듯 대포를 끌고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마치 이 나라 백성을 어린양처럼 보고 고기를 넘나보듯 그들은 의기양양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김옥균의 눈동자엔 항시 울분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이란 입신출세보다 백성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나라의 제도를 급속도로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더 보고 어 알아야겠다고 책을 읽었고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우리 나라 조정에서도 대감들은 여기저기로 분열되어 있었다.

청나라편 영국, 불란서, 미국, 일본편으로 갈피를 못잡고 외국군대가 조금만 이상한 옷차림으로 변해도 놀래버리는 딱한 사정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라의 정사는 항시 그렇다고 그런 구테의연한 상태였다. 조금만큼의 발전도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선가 썩고 있다. 어디선가 끓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필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디엘 가든 풍류적이고 새로워 보이기만 하는 그를 따르는 사람은 많았다. 그는 어찌되었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낡은 것은 쳐 없애고 새롭게 이 나라를 건설하고자 외쳤다.

백성들은 단합해서 우리도 새로운 개혁으로 새로운 문물을 들여 와서 제발 외국군대가 이 나라를 활보하는 창피를 면하고자 외쳤다.

그러나 그의 혁명은 힘이 부족과 동지의 배신으로 삼일만에 종말을 맺고 말았다.

동지들은 살해되거나 처형되고 혹은 망명해 버린 채 대업은 유산되고 말았다. 힘있는 자를 지나치게 믿었던 꺾 인지 모른다. 아니 힘있는 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은 이래서 막이 내리고 김옥균의 망명과 유리의 세월은 시작되었다.

조국을 벗어나 타국으로 망명하여 서로 또다시 배신을 당한 것이었다.

자식을 낳아 기른 가난하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동생들도 무참히 죽어 갔다.

지금도 머리카락 한뼘만이 묘지에 묻혀 있는 김옥균, 그러나 그는 이 나라에 새로운 정신을 남기고 간 애국자였다.

항시 위정자는 새로워야 한다.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고 주장하며 실천에 옮기던 그는 비록 실패하고 말았을지언정 구태의연하던 한말 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우리들에게 개화의 정신을 일깨 준 위대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위대한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이 엉뚱한 생각이란 신개발적인 것, 그리고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순신의 거북선이 그러했고, 스티븐슨의 증기 기관차가 그러했다. 김옥균 역시 그런 인물인 듯 싶다. "사상개혁"이라는 점이 좀 다를까 어찌됐던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 모든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런 버릇이 위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음에 있어 속히 고쳐야겠다.

그리고 3일 천하가 아닌 자신과의 약속에 있어 만년 천하를 이루어 볼 꿈을 꾸어 보지 않

으려는가?

김옥균의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충북 옥천에서 관아의 잔심부름을 하는 통인을 한 명 데리고 돈 백냥을 말에 싣고 상경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가는 도중에 밤이 깊어져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게 되었다. 그날밤 고토오가 김옥균에게 글을 부탁하니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선문을 써서 보여 주었다. 고토오는 즉석에서 훌륭한 글을 지어 내는데 감탄하여 휘호까지 부탁하였다.

김옥균은 그것 역시 힘들이지 않고 즉석에서 써 주었다. "마쓰가다"와 라이벌인 고토오는 훌륭하게 선문과 휘호가 완성되니까 의기양양하여 마쓰가다를 찾아가 선문과 휘호를 보이며 전액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마쓰가다는 그것들을 한참 들여다 보더니 참 잘 쓰셨군요. 현대 아무래도 각하의 글씨 같지가 않은걸.... 어쨌든 각하에게 이론 재주가 있는 이상 내가 굳이 전액을 쓸 필요가 없으니 각하가 다 맡구료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고토오는 크게 당황하여 어쩔 수 없이 선문과 휘호가 김옥균의 것이라 했다. 감탄하여 자기의 전액도 김옥균에게 부탁해 달라고 했다. 김옥균은 이를 역시 응락했다.

이처럼 김옥균은 글씨에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학에도 뛰어났었다고 한다. 어쨌든 김옥균은 한말의 가장 재주가 뛰어난 인물임을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이다.

그 나라가 정치를 잘 할 때에는 모두 정치 이야기로 꽃피우고 그 나라 정치가 엉망일 때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몇 사람의 대감들 손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을 수령 속에 몰아 넣고서 깨다름 없이 권력이나 휘두르는 대감들게 굳게 반항하고 개혁하려는 대감이 김옥균 대감이었습니다.

김옥균은 나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변을 일으켰으나 불행히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역적이 되었고, 그는 일본에 망명을 하였지만 나라의 안에 있던 그의 아버지는 천안 감옥에서 사약을 마시고 죽어야 했고 그의 어머니와 누님도 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는 서울 감옥에서 죽었고 그의 부인 유씨는 충북 옥천의 관비로 하천되어 고생 끝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와 백성에게 개혁을 가져 오겠다는 그와 그의 가정은 썩대 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단 한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옥균의 누이동생 군이입니다. 그도 약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남편 송병희의 약은 꾀 덕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젠 처가가 저렇게 되었으니 이젠 어떡하면 좋지!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해도 내 부인은 그 사람이니까 분명히 죽어야 한다고 할 텐데.... 안되겠다. 이러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당하겠구나 하여 꾀를 냈던 것입니다.

송병희는 자기 아내를 죽은 것처럼 관을 만들고 사흘장을 지냈습니다. 사흘동안을 슬픈 상주가 된 그는 위장된 눈물을 자꾸 흘리기만 했습니다. 사람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는 법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내와 같이 죽으리라 하고 결심을 단단히 하였던 것입니다.

조정은 물론 친척까지도 위장된 장사라는 것을 아주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리고 송병희는 여기저기를 방황했습니다.

그 후 일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영천에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다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떤 신부인지 진한 화장에 꿀물을 눈에 발라 눈을 뜨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사람들의 열광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타향천리 아무도 그들의 상태를 잘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경사났다고 음식을 먹고 술이 취해 비틀거리곤 했습니다.

양팔을 부축받으며 예를 올리는 신부의 얼굴에서는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부 좀 보게나 좋은 신랑 얻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까지 흘리네 어허허허.... 라고 웃곤 했습니다. 허나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관을 만들어 상여를 내고 묘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식까지 위장해서 자기를 구해 주겠다는 남편을 생각할 때 그녀의 눈물은 살았다는 보람에서 기쁨에 북바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얼굴에 다닥다닥 분칠한 그녀는 김옥균의 누이동생이었고 송병희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정말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혜에 아니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지요. 제가 다시 죽는다 해도 이젠 아무 소망도 미련도 없을 것 같아요.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어찌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는데 부인 혼자 갈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니 죽더라도 같이 죽는 겁니다. "여보, 흑흑흑...."

그들은 영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흘만에 천안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천안에서 은거한 그들은 꼭 신혼인것처럼 다정했습니다. "여보, 만약에 제가 없다면 당신은 어찌 하셨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1년도 채 안되서 재혼을 하시고 말걸요?"

"아니, 내가 부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소. 부인이 죽으면 나도 죽고 내가 죽으면 부인도 죽는 것이니 아무 염려 말아요!"

"그런데 여보, 아주 촌락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아요. 네?"

"부인 나도 생각했던 바요. 아주 이 계제에 이사를 합시다." 그들은 천안에서 얼마동안 살다가 이제는 아주 촌락에 묻혀야겠다고 생각하였던지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 땅에서 여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1914년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에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으로서 자객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대역죄로 시체하나 찾지 못하고 김옥균의 머리카락이 묻히던 날, 옛 동지 박영효는 이렇게 추도사를 읽어 내렸습니다.

"비상한 재주를 갖고 비상한 시국을 마났는데 비상한 공은 없고 비상한 죽음만 있으니 아! 김옥균 공이여.... 하고 추도사를 읽다가 울어 버릴 때 이를 구경하던 마을 부녀틈에서 한 할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해 주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기 모인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김옥균의 누이동생으로서 판교에 사는 군이였습니다.

김옥균의 옛 동지 박영효가 추도사에서 지적한 대로 비상한 재주가 있었던 김옥균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객에게 죽음을 당해서 비상한 죽음만 남겼으니 그 가문을 이어 나갈 누이동생 살리게 한 데에는 군이 남편 송병희의 비상한 머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남 공주 정안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나 천안 광덕에서 글을 읽었고 한양에 올라가서는 비상한 재주로 출세길에 올라 이 나라를 개화시키겠다는 일념에서 정변을 일으킨 김옥균과 누이동생, 가족과 깊은 사랑의 시간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풍운아를 오빠로 두었기에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기면서도 끝내 김옥균의 가문의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살아 있다는 보람으로 살아온 군은 정말 남편의 지극한 사랑 밑에서 생애를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천군 판교땅에 가면 남편 송병희를 칭찬하는 소리가 격언처럼 되어 버렸고 또한 아내의 부지런한 남편에의 공경을 아낙네들이 귀감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사랑이 깊었던 데서 울어난 일이라 하겠습니다.

김옥균! 묘를 바라보면서 그의 명복을 빌고 빕니다.

[2] 윤 도 의

본명은 필전이며 도의는 그의 호이다.

효종 5년(1653)부터 현종 4년(1662)까지 아산 부사로 활약한 분이시다.

한 나라안에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목민관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백성들로 존경을 받는 사람 또한 많다. 아산군 영인면 신화리 1구 일면 "쇠재산"이란 곳에 윤도의 부사의 묘가 있는데 윤부사께서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셔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그분은 청렴결백하시고 학식과 덕망은 물론 도량까지 겸비하셔서 백성들간의 불화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연로하신 어머님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셔서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서슴치 않고 하셨다. 어머님 앞에는 항상 어린 소년으로 돌아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게 가까이에서 모셨다. 그 분의 이러한 정성을 우리들은 효의 거울로 삼고 부모님께 성의를 다해야겠다. 불의를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보살피시는 그 분의 인품을 잘 나타내 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날 부사는 부하 몇 명을 거느리고 그 고을 사람들의 생활을 몸소 파악하고, 견해서 한양에서 내려온 지시를 처리하시기 위해 길을 떠나셨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있는 시골 풍경은 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풍족해졌다. 가는 곳마다 순박한 농민들은 극진히 부사를 대접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펍 풍요롭고 한가하게 보였다. 한참 마을을 둘러 보는데 무슨 일인지 마을 한쪽에서 시끌시끌한 소리와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다. 보사는 이상히 여겨 옆에 있던 부하에게 "무슨 일인지 냉큼 알아보고 오너라"하고 일렀다. 잠시후 일을 알아보고 온 자가 아뢰길 "나으리, 별 일 아닙니다. 그저 무지한 자들의 사소한 말다툼 뿐입니다. 개의치 마시고 어서 길을 재촉하시지요." 그러나 윤부사는 화를 버럭 내시며 "어찌 그런 소리를 하

느냐!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니니 큰소리를 내며 싸우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느냐?" 부사의 호통에 머리를 수그리며 ""제가 잠시 경솔한 생각을 했사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는 부하는 부사를 그곳으로 안내했다. "이놈아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뭐가 어찌고 어째?" 부사께서 그곳에 가보니 두 사람이 서로 먹살을 잡고 옥살을 퍼붓고 있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싸우느냐?" "아니 덕은 뉘 시길래 남의 일에 참견이요?" 그들은 한참만에야 감정이 격한 목소리로 대꾸를 했다. 옆에 섰던 부하가 보다 못해 "이 분은 이 고을의 부사이신 윤도의 어른이시다. 어찌 이리 무례하단말이냐?" 하고 꾸짖자 그들은 그때서야 놀라는 기색이더니 급기야 자세를 고쳤다. 그 때 한 농부가 땅에 엎드리며 "나으리, 저의 이 분함을 풀어 주옵소서." 하며 마르고 얼굴에 주름살이 굵게 패인 모습의 농부가 말을 꺼냈다. "그래 무슨 일이길래 큰 소리가 싸우는지 자초지종을 말해 보아라." "예, 소인과 이 자와는 서로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행이 꽤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모두 지나간 일이니 덮어두고라도 오늘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집은 감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선친께서 소인이 태어났을 때 입에 풀칠 하기 힘든 살림인데도 좋은 종자의 감나무 묘목을 사서 심으신 것입니다. 짐식구들은 모두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너무 울창해서 그 가지중에 몇 가지가 담을 넘어 저 자의 집에 들어갔나 봅니다. 소인의 집에서는 그 나무를 보배같이 여기는데 저 자는 그 감나무 가지가 저의 집으로 넘어왔다 하여 자기 마음대로 취급해도 된다고 하며 감을 따먹더니 이제는 가지마저도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저 자가 소인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라도 있었다면 소인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명한 부사 나으리께서는 옳고 그름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아직까지도 식식거리며 있던 뚱뚱한 다른 종부도 가만히 있질 않았다. "나으리, 저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보배는 무슨 보배이며 설령 그 나무가 보배라 해도 저의 집에 넘어와 앞사귀를 떨어뜨리며 집안을 어지럽히는 그 가지를 잘라냈다 하여 무슨 죄가 되겠으며 감을 따 먹었다 해도 소인의 집에 넘어온 것이니 저의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도 물려서질 안 왔다. 부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더니 방그레 웃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뚱뚱한 농부를 가까이 오게 하시어 그의 어깨에 팔을 올려 놓으셨다.

영문을 모르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몸 둘바를 몰라했다. "이 팔이 너의 어깨에 있으니 이 팔은 너의 팔이냐?" "아, 아닙니다. 나으리 어찌 그것이 소인의 팔이 되겠사옵니까? 그건 나으리의 팔이 아닙니까?" "너의 어깨에 있는데도 너의 팔이 아니냐?"

부사의 이 말씀에 농부는 부사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 차렸는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커다란 호통보다도 부사의 의미있는 비유가 얼마나 현명한가! 주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부사의 이 현명한 판결에 감탄과 경의를 금치 못했다. 그리고 고을 백성들도 부사의 이 판결을 전해 듣고 더욱 존경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듯 꾸지람보다는 타이름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써 고을 일을 다스리시던 윤부사님의 묘가 누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 고장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윤부사님의 이런 일화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분의 인품을 알고 있는 좀 더 많은 지식과 교양을 갖추어 항상 우리의 신분에 맞는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도리일 것이다.

[3] 윤 득 실

아산땅은 산수가 아름답기로 예로부터 이름난 고장이다. 동쪽으로는 천안에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신창과 온양에 접하여 있으며 서쪽은 음천에 이웃하고 북쪽은 평택에 맞닿아 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름난 산으로는 신성산, 동림산, 고영산, 연암산, 월량산 등이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봉우리가 교차 대치되어 겹으로 둘러 쌓여있고 그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그 중간엔 평야가 길게 뻗어 있어 수목이 울창하며 기름진 뚝은 들은 해마다 오곡이 무르익어 인심이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다.

구한말 우리 나라는 남인이니 서인이니 하며 공간에서 임금님을 사이에 두고 노론 소론하며 정사는 돌보지 않고 서로를 혈뜰고 자기들이야말로 충성스런 신하라 서로들 자처하며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 때 당파 싸움이 한창일 무렵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은 그 틈바구니에 갇힌 어진 선비들이었는데 그들 선비중에는 스스로 벼슬을 던지고 낙향하여 여생을 시골에서 보내는 이가 많았다. 이들 선비중에 한사람인 윤선비가 있었

으니 벼슬이 의정부 공찬으로서 그 자리를 물러나와 아산 지방으로 낙향하여 무식한 행촌의 백성들을 계몽하면서 선한 일들만을 하며 백성들에게 착한 일만을 본받게 하였다.

어느덧 그 고을 사람들은 하나, 둘, 윤선비의 가르침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월은 기다림 없이 흘러가는 것 윤선비가 졸은때를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윤선비가 죽은 후 윤씨집의 가세는 더욱 더 기울어져 갔다. 그러나 윤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본받아 비록 가난하여도 의리와 도리를 다하여 착한 일만을 행했다. 어느날 윤씨는 이웃 마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은 중이로되 거지와 다름없이 몸은 움직이나 송장같은 걸인이 길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허.... 뉘신데 이토록 고생을하오?" 윤씨가 물었다. "네 소승은 보시다시피 걸인 중놈인데, 몸은 늙은데다 병마져 들어 낱은 추워 몸은 얼어붙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하고 노승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거 참 딱하기도 하거니와 어찌 한담. 집이 너무도 누추해서...".하며 그래도 길보다는 낫겠다며, "우리집으로 가십시오."하고 윤씨는 죽어가는 중을 집으로 데려와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 입혀주고 약을 구해와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아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다.

삼동기간 정성껏 간호해 준 보람으로 중은 몸이 완쾌하게 되었다. 쌀쌀하게 불어 오던 참 바람도 걷히고 따스한 이른 봄날을 맞아 중은 윤씨와 작별을 고한다.

"소승의 몸도 완쾌되었고 또 날씨도 풀려 소승의 머무르던 곳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승의 죽을 목숨이 이토록 살아 남아 있는 것도 모두 어지신 윤씨댁의 은덕이 온^ㅎ 보시다시피 소승은 아무것도 없이 윤씨댁에 대하여 그 은혜를 갚은 길이라 곤 없습니다. 다만 소승이 풍수법 지리학을 좀 터득한바 있어 윤씨댁의 묘지나 한자리 일러드리고 가겠습니다."말하고 중은 동네 어귀를 빠져나와 산골짜기를 돌아 언덕받이를 오르기 시작했다.

중은 사면을 한번 돌아보고나서 윤씨를 바라보며 묘자리에 서서 그곳의 경치를 읊기 시작했다.

"동쪽으로는 비봉귀소형이요, 즉 봉이 날아가다 다시오는 형상이요. 남쪽으로는 금학포란형이요. 즉 학이 금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요. 서쪽으로는 비룡등철형이요. 즉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형상이요. 북쪽으로는 행주형이여. 즉 배가 떠나니는 형이요."라고 그가 말을 하니 윤씨가 그곳을 둘러 보고는 놀라며 "바로 이 산너머에 있는 산소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무덤이 아닙니까?"하고 물으니 그는 그럴다고 하면서 "그 산소도 당초에는 이리로 옮긴 것입니다."하고 말하고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도 덕수 이씨댁 산이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윤씨는 깜짝 놀랐다. 그도 그럴것이 소승이 명당자리를 잡는다고 내산도 아닌 남의 산에 자리를 일러 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더욱이 덕수이씨 산이라며 장차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유로이 구입할 도리가 없는 땅이기 때문이었다. 윤씨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중은 다시 입을 열고는 "인간만사는 다 전생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모든 물건은 임자가 따로 있게 마련이요. 먼 옛날 윤씨댁 윗대 조상님과 충무공 사이에도 묘한 인연이 있었을 것이요.

지금의 당신댁이 몇 대를 두고 덕을 닦아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를 내 혈육과 같이 하였으니 그 공덕인들 어찌 하늘이 무심하리오."하고는 그곳에 윤씨 아버님의 무덤을 옮기고는 이 고장을 잠시 떠나 살면 머지 않아 자연히 아버님의 분상을 모으게 될 것이니 그때는 중 자신도 윤씨도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는 소승은 말을 계속 이러 나간다.

"이 자리가 바로 명당지로서 아산 땅에서는 손꼽을 자리지요. 저 사면을 바라보십시오.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때 모양으로 동서남북에서 이 산을 멀리 혹은 가까이 감싸 주고 있지요." 그 중간을 불끈 솟은 산이 중심으로 힘차게 내려 뺨은 산줄기들의 형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묘자리를 따는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노승의 말은 계속된다.

"윤씨댁 아드님이 아직은 어리나 장성만 하여 보면 반드시 고관 대작이 될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재산으로도 갑부소리는 듣게 되지요. 단 한가지 흠이 있다면 몇몇 자손은 여의치 못할수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부귀경전 하는 이런 자리도 아산땅에서는 흔치 않은 명당자리지요."라고 자세히 자리를 일러 주고는 노승은 염주를 굴리면서 발길을 옮기어 가고 있었다.

그곳에 묘를 옮긴 후, 그래서 그러한지, 과연 그 후로 윤선비 자손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즉 학부대신 윤치호, 군부대신 윤웅렬, 윤영렬 등이 고관 대작을 지냈으며 근간에 있어서도 대통령 윤보선씨 대학총장 윤일선씨 장관 윤치영씨 등을 배출한 바 있다.

우리는 흔히 옛것을 하나의 미신으로 돌려 보리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풍수지리학은 우리의 생활에서 쓰고 있음은 아마도 우리 선조들의 넋이 우리의 땅에 뿌리박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일화에 지나지 않으나 윤씨 일가의 덕기를 말해주는 좋은 말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는다. 불교에서의 인과응보보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4] 윤 치 호

구 한국말의 정치가, 호는 좌옹, 둔포면 신항리 출신, 1881년(고종 18년) 최연소자로 (17세) 신사유람단에 끼어 일본을 다녀와서 개화사상에 눈을 떴다. 뒤에 미국에 유학하고 1895년 9월에 귀국하여 학부형 판이 되고 이듬해(건양1) 7월에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등과 독립협회조직, 1898년 2월 회장이 되고 이해 7월 독립신문사장을 겸임했다.

10월 15일에는 종로네거리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회장의 자격으로 시정개혁 6조를 왕께 상소하여 자주독립과 경제번영을 열망하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여 활약했으나 11월 4일 황국협회측의 모함을 입어 피신(독립협회사건~대표 17명 검거)하고 독립협회도 해산당하였다.

1899년 정부는 윤치호에게 한성판윤을 주겠다고 회유책을 썼으나 이를 거절하자 함경도 덕원부윤으로 쫓겨갔다. 1906년 4월 장지연, 윤효정 등과 교육의 확장과 부강을 도모하여 훗날의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대한자강회를 조직, 회장이 되어 활약했다.

1910년(유희 4년) 대한기독교 청년회를 조직 한.일합방 후 데라우찌 총독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1912년 6년형을 받았다.

일제말기에 귀족원의원이 되었다. 해방후 친일파로 몰림을 슬퍼하여 개성 자택에서 자결했다. 해방전 1936년 헬렌켈러 여사가 서울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여 소위 '삼중고의 성녀'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으로 별명의 뜻을 세가지의 어려움을 자긴 성스러운 여자라는 뜻이었다.

어느날 조선호텔에서 그녀의 성대한 환영회는 각 사회단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본 사람도 많이 참여했는데, 환영회가 끝난 다음 그 당시 서울에 와있던 선교사와 한국인 유지들이 로비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적에 어떻게 되어서 이야기가 "처시하"라는 말로 번져 재미있는 웃음판이 벌어졌다. 처시하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어른같이 받는다라는 말이니, 공처가라고 하면 처시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한 것은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간 사람들이 시초의 선조인데, 처음부터 여자가 적었던 까닭에 자연 여자가 귀하여 여자라고 하면 사족을 못쓰고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남자를 천하게 여기는 풍습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재에 와서도 큰 빌딩의 엘리베이터 같은데서 단 한사람이라도 여자가 탔으며 남자들은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자를 벗어야 하는 법이니, 여성으로서는 좋겠지만 남성으로서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여자가 이혼 소송만 법원에 내면 백발 백중 으레 여자편이 이기게 마련이다.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도 가지 각색으로 심지어는 남편이 목을 잘라지 않으니까, 재판관의 결과는 대개 아내의 이유가 옳으니 이혼을 해주라는 재판관의 판결이 내려진다.

그 반대로 남자측의 이혼 소송은 여간해서는 승낙을 얻지 못하며 성공한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수입의 몇 분의 일은 위자료로 전 아내에게 주어야만 하는 짐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이혼을 한 일이 있는 남자는 전 아내의 생활비를 대느라고 일생을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 남성들이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미국인들과는 정반대로 한국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스럽고 남존여비의 풍습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날도 미국사람들이 미국의 여성주의를 이야기 하다가,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아마 공처가는 없을까요?" 하고 물으니, 윤치호는 "그야 한국에도 많지요.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리까?" 하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내었다.

옛날 어느 때 한 임금이 계셨는데 그 임금은 나라도 잘 다스리고 몹시 인자한 성품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서 항상 왕비에게 찔찔매었다. 그로 말미암아 왕은 늘 마음에 좋지못한 근심이 쌓였다. 왕비에게 찔찔매어 사느니만큼, 대체 세상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따듯하게 햇볕이 내리쬐는 날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가 모두 나같은 생활을 할까 궁금하여 시험해 보려고 청색으로 만든 기와 홍색으로 만든 기 한 개씩을 만들어 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윽고 신하가 두 기를 가지고 오니 대궐밖으로 나와 넓은 마당에 한쪽에는 청기를 꽂고 다른 한쪽 구석에는 홍기를 꽂게 한 다음 다시 분부하시기를 "백성들은 듣거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은 청기 밑으로가고 잘 듣

지 않는 사람은 흥기 밑으로 가라." 하셨다. 임금의 명령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자 무슨 상이나 주는줄로 알고 남자들이 우루루 몰리는데 모두 청기쪽으로만 가서 모였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처시하에 있던 사람들일 것이다. 왕은 "흥. 백성들도 별수 없군"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미는지라. 그러나 다만 한사람은 느릿느릿 걸어 흥기밑으로 가서 서는지라. 그는 심여살밖에 안되는 조그만 아이였다.

왕은 신기하고 기특해서

"모든 사람들은 청기쪽으로 갔는데 너 많은 흥기쪽으로 가서서니, 그래 너는 네 아내가 무섭지 않느냐?"하고 임금님은 물으셨다. 그는 한참동안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상감마마.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소인의 처가 말하기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다니라고, 많이 모이는데는 가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흥기밑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다."하며 탄식하셨다. 즉 흥기밑으로 간 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내를 두려워하고 또 아내의 말을 가장 잘 들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좌옹 윤치호의 말이 끝나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웃었으며, "한국사람도 정말 그렇게 아내를 무서워합니까?" 하고 세상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이것은 청기흥기라는 좌옹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선생의 말에는 언제나 기지와 유머가 있어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탄리에서 출생했다. 좌옹 유저에는 애국가를 윤치호 선생이 지었다고 하며 석곡리 비문에도 전한다.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대한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남산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3. 가을하늘 공활한데 구름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가슴 일편 단심일세
 4. 이기상과 이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 지금의 애국가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윤치호 선생이 살아계실 때 적은 책이었다. 이 책에는 교훈적이고 우수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고양이와 원숭이」

고양이가 원숭이사 한집에서 정답게 사는데 둘의 장난이 심하여 원숭이는 보는것마다 훔치고 고양이는 쥐잡는데는 마음이 없고 천장에 드나 들더니, 하루는 화로에 반구운 것을 보고 원숭이가 고양이를 불러 말하기를

"형님, 저 군밤을 꺼냈으면 우리둘이 잘 먹겠소마는, 내손은 형님처럼 길지 못하니 형님이 꺼내시오." 그 말을 들은 고양이가 화로에 재를 헤치면서 저밤을 하나씩 꺼내 놓는대로 원숭이는 가서 먹더니 주인이 들어와 고양이는 발만데고 밤은 맛도 못보고 도망치더라.

(왜인의 앞잡이로 매국하는 사람들 생각좀 하시오.)

「사슴의 뿔」

하루는 냇가에서 사슴이 물을 먹다가 물속에 비친 뿔그림자가 좋아서 하는말이 "이 뿔은 참 훌륭하다. 뿔을 보면 내가 천하 일색이지마는 다리가 장대갈아서 분하다." 하고 탄식하더니 별안간 사냥개가 쫓아오니 엽신여긴 다리가 나는 듯이 뛰어 위급을 면할 뻔하였는데, 그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잡힌지라 사슴이 한숨지며 말하기를 "외면치레 만하면 몸을 망친다"하더라(외면만 보고 친구 사귀지마라)

「나귀의 실수」

한사람이 나귀하나, 강아지 하나를 두었더니, 나귀가 본즉 강아지는 아무 재주도 없이 주인 앞에서 꼬리나 치고 뛰거나 하면서 좋은 음식을 얻어먹고 주인의 귀여움을 받거늘 나귀의 생각에 "나도 강아지하는대로 하리라."하고 하루는 그 주인앞에 가서 꼬리를 저으며 강아지 흉내를 내다가 주인이 웃는 것을 보고 더 대담하여 주둥이를 주인의 귀에대고 기운 것 울고 앞발을 주인 어깨에 얹고 뒷발은 주인 무릎위에 놓으려 하거늘 주인이 놀라 하인을 불러 채찍으로 때려 마구간으로 몰아 넣더라.

(이 말은 직분을 버리고 남의 흉내만 내는 놈은 채찍이 마땅하더라.)

「제비의 충고」

제비가 세계유람을 널리하여 지식이 많은지라 하루는 농부가 노끈꼬는 열씨를 심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니 그 삼이자라면 노끈이 되어 그물을 떠서 들어있으면 새들이 많이 잡힐터라 제비가 그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새들을 모아놓고 낚하기를 "삼이 자라면 우리 동포에게 큰 해가 될터이니, 우리가서 열씨(삼씨)를 낚날이 다 집어먹어 후한을 없이 하자." 하고 지성으로 권하매 여러 새들이 혹은 웃으며 말하기를 "맛없는 삼씨 먹느니 다른 곡식을 먹지"하며 혹은 "아무리 하기로 나아 잡힐까"하며 혹은 "오활한 소리마라. 그런짓 안 하고도 우리 4천년이나 잘살았다." 하고 혹은 "에그 나는 늙었으니 설마 내 생전에야 어떨겠나" 하고 자라서 싹이 파릇파릇 나는지라.

제비가 다시 새들에게 연설하여 아직도 늦지 않으니 싹을 모두 먹어버리자고 하여도 새들이 듣지않고 제비를 보며 미쳤다 하고 역적을 모의한다 하여 몽둥이로 때려 쫓아서 새 종중에 들지 못하게 하였더니 몇 달 후에 그 삼이 무성하며 농부가 거두어 껌질을 벗기어 노끈을 꼬아 새 그물을 떠서 새를 수없이 잡아 없애니 그제서야 새들이 제비의 충고를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더라.

「황새와 붕어」

한 늙은 황새가 눈이 어두워 물 속을 잘 보지 못하여 고기를 잡을 수 없는지라 하루는 방죽가에 앉아서 생각하더니 붕어 한 마리가 물위에 솟아다니거늘 황새가 다정히 인사하기를 "부참봉 편안하시오?" 붕어 "댁은 요새 관보도 못 보시오? 내가 직각벼슬한지가 벌써 몇일이오" 황새 "내 몰랐소. 그럼 치하좀 합시다. 그러나 안된일 있소. 어제 내가 여기 섰노라니 방죽주인이 어느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보름안으로 이 방죽을 다치우고 고기를 잡겠다 합니다. "붕어가 급히 물 속으로 들어가 어족총회를 모으고 황새의 말을 반포하니 총회에서 부지각을 황새에게 대표로 보내서 고기사회를 보전할 방침을 물으니 황새가 홀연히 대답하기를 "자 좋은 수가 있소, 저 산밑에 내가 여름이면 피서하려고 만들어둔 연못이 있으니 붕어국 팔백만 동포를 내입으로 하나씩 모셔다가 그 연못에 놓고 여러분의 평안함을 보호하여 드리리다." 붕어들은 황새의 의도와 은혜를 감시하여 그 말대로 하였더니 황새가 고기를물 어다가 얇은못에 넣어두고 날마다 마음대로 잡아먹더라.

「생쥐와 쥐방울」

한 큰집에 쥐 잡는 고양이와 쥐가 멸종될 지경인지라, 쥐들이 비밀로 총회를 열고 그 고양이를 없애거나 피할 도리를 구하느라고 의논이 분분한 중에 가장 어린 생쥐 하나가 회장을 동지하여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으면 그놈이 꿈쩍만 하여도 딸랑 릴테니 우리는 때 맞추어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소." 하니 회중에 대회하여 손뼉을 치며 갈채하는데, 그 중 늙은 쥐 한 마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고 하는 말이 "저 어린 친구의 계획이 좋기는 좋다마는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는지 자신이 있거든 손을 드시오." 하매 회중에 아무말 못하고 다 헤어지더라.

외국의 문물이 몰밀 듯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할때 윤치호는 앞장서서 남의 것을 배우고 연구하였다.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았다.

어지러웠던 구한말 남의것이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생각, 그때로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그는 나라의 위하는 생각이 옳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지키려 애썼기에 지금 이 땅의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언제까지나 빛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애민태과라는 말의 뜻은 유행어처럼 여러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윤치호 선생이 덕원감리로 있을 때 유래된 것이라 한다.

총명하고 신지식이 뛰어난 데다가 재화까지 겸비한 청년관리 윤치호 선생은 종전의 악폐를 없애고 큰 치적을 올린 연유로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존경을 모으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모두들 무서워하는 외국인의 배를 신지식을 이용하여 물러가게 하니 백성들의 선망은 더욱 두터워졌다.

한편 조정에서는 서로 혈통고 미워하는 당파싸움에 세력다툼이 심했던지라 그 영향은 결백한 윤치호까지 와서 봉고 파직을 당하게 되었다. 봉고파직의 원인인즉 애민태과 손실 정계라 한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여 파직당한 윤치호 선생에 대한 백성들의 동정은 고종임금에게 까지 알려져 다시 복직되었다.

이런 연유로 윤선생에 대한 음모는 단락을 맺게 되고 애민태과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어 지금도 전해진다.

옛전통만을 고수하려는 양반들, 그러나 윤치호는 개화를 중시하고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다. 애민태과라는 말도 그가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자랑스런 선인들 다시한번 그 선인의 훌륭했던 마음가짐을 나의 가슴에 깊이 새기어 본다.

[5] 이 간

51년이라는 짧은 생애속에서도 그 학식과 덕망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까지 좋은 귀감이 되는 분이계시다.

이제 그분을 소개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이간 선생은 1677년(숙종3년)에 나시고 1727년(영조3년)에 돌아가신 조선시대 학자이었다.

자는 공지, 호는 외암 추월헌이었고 본관은 예안이며 권상하의 문인이셨다.

이분의 소년실화에는 이런 것이 있다. 당시 이 고을에는 강씨가 수백년동안 살아왔다. 어느날 강씨의 꿈에 흰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마을에는 강씨의 운이 다했으니 뒷집의 이간에게 집과 토지를 다 넘기고 이 마을을 떠나도록 하라." 하고 백발노인은 연기같이 사라졌다. 강씨는 헛된 꿈이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하루를 보냈다. 그날밤 전날 나타났던 노인이 또 나타났다. "내이놈, 내가 당장 이 마을을 떠나려고 했는데 네놈이 멸족의 화를 당하고 싶으냐?"어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하고 또 연 처럼 사라졌다. 강씨는 하루종일 그 꿈을 생각했다. 멸족의 화라고? 설마설마..... 그날 백발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성난목소리로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고한다. 이 마을을 당장 떠나거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멸족의 화를 입으리라."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강씨는 날이 밝는 즉시 이간에 집을 찾아갔다. "내 제발 부탁하네. 제발 우리집과 땅을 사주게나." "어르신네도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그 많은 토지를 다 샅니까?" 강씨는 이간에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였다. "그러니, 다는 안되더라도 어떻게 조금 안되겠나" 집안 어른과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값을 치르고 사 가게" 이간선생은 돈을 융통해서 강씨에게 주었다. 강씨는 그 길로 떠났고 그 뒤 이간은 강씨의 재산을 갖고 살았다.

소년시절에 이간 선생께서는 매사냥을 무척 좋아하셨다. 하루는 충북 제천지방으로 매사냥을 가셨는데 그 때 송시열의 수제자이며 영의정으로 계시던 수암 권상하 선생이 이간선생을 보시고 말하시기를 "자네는 보아하니 글에 열중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듯하니 매사냥은 그만두고 공부를 하여 벼슬에 오르는 것이 어떨겠나?"하였다. 이간께서는 그 즉시 밖으로 나와 잡았던 매를 다 풀어주고는 권상하의 수제자로서 학문에 열중하였다. 하늘이 알아주고 인간이 알아주는 인재이셨던 것이다.

그런 후 권상하의 생일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 제자들은 평소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여쭙기도 하였다. 이간께서도 궁금히 여기시던 것을 여쭙니 문득 권수암이 못들은척 하시는 것이었다.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뒤이어 다른 제자가 여쭙는 것은 명쾌히 답변을 하시는 것이었으니 더욱 이상히 여길 수 밖에 없었다. 이간께서는 재차 여쭙어도 대답이 없고 돌연 박장대소를 하시는 것이었다. 제자들중 한명이 공손히 그 까닭을 여쭙니 권수암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물었으니 그만큼 성장한 학식이 기뻐 웃는다"하셨다. 이 말씀에 모두들 이간선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이간선생은 더욱 학문에 열중하셨다 한다.

외암 이간선생이 당시 제천, 한강이라는 지역의 권상하이하 문인들이 학문에 힘쓰던 조직인 강문 팔학사의 한사람으로 지내다가 권상하께서 돌아가시자 선생님이 추대받았으나 거절하셨다 한다. 아마도 덕망 높으신 그분의 겸손이 아닐까 한다.

1710년 숙종 36년 장릉 참봉으로 천거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후 6년 뒤 되임 회적현감, 경연관을 거쳐 충청도관찰사겸 해운관, 세자의위사, 익위등을 지내셨다. 강문 팔학사의 한분으로서 인물의 성은 동일하다는 인물동성론을 학문의 근본으로 하시고 같은 권상하의문인 한원전의 인물의 성이 다르다는 학설과 반대하여 5, 6년간 논쟁을 거듭했고 그 분의 학설을 지지하는 추종자들과 무리를 이루어 낙론을 형성했다.

이간선생은 글씨도 잘쓰셨으니 자꾸만 고개가 숙여진다. 온양 외암서원에 제향, 순조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정공이라 한다.

숙종이 돌아가셨을 때, 예조판서와 대제학같은 중신들과 의논하여 국상예절을 바로잡으리라 결심하신 이간선생은 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예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개국후 200년이나 지났는데도 국상제도가 문란한 것은 커다란 부끄러움이다. 이번 국상에 슬픔도 막대하나,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제도를 정

비할 수 없을 것이다. 슬픔을 딛고 국상을 이러이러하게 치루자"하는 것이 그 사찰의 내논이었으리라.

당장에 반발이 나왔다. 의도는 좋으나 국상제도가 너무나 혼잡하여 자칫 뜻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인간계서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국상을 치르고야 말았다. 질서정연하고 참다운 국상답게 엄숙히 치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의 느낌은 정말로 컸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국상제도는 그 분이 이루어 놓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분의 공적을 찬양하여 이 분의 묘는 지금도 동네에서 마주보이는 삼신당이라는 곳에 묘비와 함께 모셔져 있다.

이 분이 사시던 동네를 외암리라 하며 이곳에는 예안 이씨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다. 얼마전에 이 마을은 민속관광마을로 선정받아 동네 곳곳에 옛날에 쓰이던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있다.

51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분의 낮은 면면이 흘러 현 송악면 외암리 주민의 긍지가 되고 있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우리고장의 위인 이간선생께 자꾸만 감사한 마음이 우려남을 금할 길이 없다.

민속관광마을을 나올 때 거기의 하늘엔 무심한 한가닥의 바람이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마치 그 분이 가신뒤의 무상한 세월을 일깨워 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6]이 정 운

그루터기만 남은 거무스름한 논바닥에도 이제 물만부어 놓으면 몽땅일을 기세다.

"어초츠"늦가을, 아니 초겨울이라는 편이 나올까" 두루마기를 잔뜩 움추린 선비 하나가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젠장, 마을도 채 달기전에 해가지다니 어디 몸불일데도 없게 됐구만" 시커먼 나뭇가지가 잔뜩 손뼉친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아롱된다.. "휴"선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주인장 계시오. 여보, 주인장 계시오?" 한참만에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얼굴을 내민다.

"지나가는 손입니다만 날이 저물었는데도 인가를 찾지 못하였기로 외람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밤 이슬만이라도....."

노부부는 망설이는 듯싶더니 이내 들어오라고 하였다.

"드리구 싶어두 어디 이 고구마밖에 없구만유." 노부부가 고구마를 내밀며 말했다. 그릇을 내미는 노파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선비는 못본체 내놓은 음식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저, 실례인줄은 압니다만은 노부부께서 어인일로 그리 수심이 많으신지요. 혹 제힘이 미칠수 있다면 아니 그보다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 무슨힘이 있겠소? 다 소용없는 일이지유."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지요. 말씀에 보시지요."

"그렇다면..... 벌써 며칠전 일이지유."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노부부께서는 늦게야 얻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물론 애지중지한거야 두말할 나위도 없었소.

이곳에서 좀 내려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번 봄 보릿고개에 노인들이 힘이 없어 식량을 못구하기로 부득이 아무개라는 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올해 따라 흉작이라 돈을 못 갚자 어느틈 몇굽이자가 되어 갚을 재간이 없었소. 그리하던중 요며칠전 그 종놈들이 그 이자대신 무언가 갚을것이 있어야 한다면 딸을 빼앗아 갔지 무엇이오." 라고 노인은 이야기 했다.

"차라리 우리가 그놈들 종이 되는 것이 낫지 우리딸을..... 어이구!"

노파는 아예 돌아앉아 연신 웃고름을 울리고 있었다.

"이런 일이....."

"그놈들은 상습적 도둑놈들이지유.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께유. 관가에 알리려고 해도 후환이 두려워서 손을 못댄다 이거지유."

선비는 위로로 하고는 건너방(노파가 자리를 펴준)으로 건너갔다.

다음날 아침 대문은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노부부는 잠이 깨었다. 밤에 한탄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인 까닭이었다.

"누구슈?"

문을 연 노파의 얼굴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희열에 가득차 올랐다.

아침밥을 먹으라고 선비방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은 없고 쪽지하나와 엽전꾸러미만 남아있었다. 쪽지에는, "여기 얼마 안되지만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따님은 곳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그 선비는 이정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암행어사였다. 그는 지그르이 아산군 신창에서 태어났다. 자는 공저, 호는 오사였다. 1776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인, 지평을 거쳐 1781년 충청도 암행어사를 지내던 때의 일이었다. 그 후에도 그는 암행어사의 일을 충실히 해내었고 1784년에는 서장관으로서 사은사로 박병원등과 함께 중국에 다녀왔으며 승지로도 지내다가 충청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등을 지냈다.

임금께서는 그에게 정민이라는 시호까지 내렸고 노후에 그는 자연을 벗삼아 여행을 다녔다.

신창, 그래 우리고장에도 이같은 분이 계시다니! 다시한번 마을입구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친다.

[7]이 지 함

이지함은 조선 중종 12년(1217)에 출생하여 선조11년(1578) 아산현감으로 재임중에 서거한분이니 호는 토정이요 본관은 한산이며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현령을 지낸 치의 아들이다.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그는 형인 지번과 화담서 정덕선생에게 글을 배웠다. 잡다한 술책에도 모두 능한 이인으로 1573(선조6년) 탁행으로 추천이 되어 6품의 벼슬에 임명되었고 그는 1년후 포천현감에서 아산현감이 되었다.

세상에 시끄러운 것을 피하는 듯 한강변에 토막집을 짓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지은 토막집이란 언덕 한쪽을 파서 방과 부엌을 만들고 언덕이마에다 치마를 달아서 비와 이슬을 막게한 토막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흙집에 살면서 날만새면 밖으로나와 언덕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덕은 바로 자기집 지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망이 좋아서 강위로 고깃배가 지나 가는 것이 보이고 멀리 한양의 관악산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날이 새기만 하면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매미처럼 온 천지의 풍류속에서 매일 글자만 되풀이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집에서 산다고해서 토정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산해같은 조카가 있고 이지번과 같은 형이 있는데도 그는 철것을 쓰고 다니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이 책만 읽었으며 날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대로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온천하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해도 ㅁ품있게 다니는 까닭은 그가 세상을 보는눈이 그만큼 날카로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살림을 한다했 주변머리가 없는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재주도 비상하였지만 돈을 벌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때는 몇백석지기를 마련하여 부자로 행동할줄도 알았지만 그 고장을 뿔때는 모두 이웃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빈털털이로 행장을 차리고는 하였습니다.

그는 토정비결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마음속으로 괴로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합니다. 또 그는 박식하였기에 세상사에도 밝았습니다. 조정에서 살발한 일이 일어나면 그는 백성의 편에서서 사회도의를 그렇게 심호하게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찾아오면 괴로움속에서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부모에의 효성은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가르쳤고 당파싸움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인식과 임금에게의 충성은 자신의 충실에 달렸다고 설파하며 선한 마음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풀이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지함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부모님의 속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효도의 제일 큰 기본으로 지적했습니다.

임금님께 충성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배워서 나라의 학문을 부흥시키는 것이고 임금님의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신하란 반드시 임금님 가까이에만 있는게 아니라 멀리 있더라도 실로 땀흘려 일하고 자기의 생애를 값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조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관인으로 추천되어 현감벼슬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호의호식하는 것을 몰랐고 백성들의 집을 가끔 돌아다니면서 생활에 따른 일진과 개선을 위한 직업을 낙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관청산하에 걸인청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있을때에는 많은 걸

인들이 아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온세상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이토정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곳에 와 일자리를 얻고 깨우침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의 친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공을 남긴채 오송즘을 악으로 쓰다가 62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은 칭송을 받았고 생전 사람들에게 큰 소리 한번 쳐본일이 없이 또한 그렇게 많은 학문속에 살면서도 학자언하지 않고 박식한 자신을 세상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보탬을 주고 그는 쓸쓸히 떠났습니다.

그의 비석이 아산군 영인면 면사무소내에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을 지날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토정 선생의 높은 뜻이며 또 내 자신이 그런분을 본받아 위대한 사상에 상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토정비결"하면 옛부터 그해 운수를 점치는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을 지은이가 바로 토정 선생이라하며 이조 명종때의 철학자 이지함이다.

어느날 토정의 조카로서 이산해라는 사람이 사윗감을 고르느라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숙부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얼마 후의 일이다. 토정은 길거리에서 어느 이삿군을 만났다. 이사라지만 지게에다가 솔, 남비, 그릇을 몇개 지고 또 나이 어린 남자아이마저 태운 것이 그지없이 초라했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아이의 부모는 더욱 불쌍하기만 하였다. 양반인 것은 틀림없으나 다 떨어진 의복에 초췌한 얼굴 모양만 보아도 그가 몹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토정은 지게에 앉힌 아이를 유심히 보고 또 보았다. 그러다가 무슨생각에서인지 멀지감치에서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후 그들은 어느 유복해보이는 선비집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 본 토정은 집으로 돌아오기가 바쁘게 조카 이산해를 불렀다. 그리고 본 대로 말한 후

"그 아이가 장래 큰 인물이 될 것이니 곧 찾아가서 일찌감치 청혼을 하여 두어라."하고 권하였다.

이산해는 그 집을 찾아가 이사온 사람을 물었더니

"시골 사는 친척인데 가난을 못 견디고 나를 의지해 왔기에, 우선 뒤꼍 방하나를 비워주었소." 하는 것이었다. 이산해는 주인한테 "어떻게 그 선비와 그의 어린 자제를 지금 곧 만날 수는 없겠소?" 하고 청하였다.

주인은 선뜻 승낙하더니 하인을 시켜 자기옷을 먼저 가져다주게 하였다. 아마도 남루한 옷차림으로 손을 만나게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좀 있으려니까 옷을 빌려 입은 아이의 부친이 사랑에 나왔다. 이산해는 첫인사를 한 후 "실은 자제를 한번 보고싶어 왔으니 불러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좀 있으려니까 명색만이 옷을 입은 그 아이가 나왔다. 그리고 시키는대로 예의바르게 절을 한 다음 이산해 앞에 공손히 꿇어 앉았다. 그런 아이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이산해는 혼자속으로 "과연 삼촌의 말이 옳다." 하고 탄복하였다. 이산해는 앉은 자리에서 청혼하였다.

"아직 서로들 나이가 어리고 또 뜻밖의 일 라 혹시 농으로 요기실지 모르나 이것은 진심이니 우선 청혼이나 해 둥시다."

시골 선비는 어리벉벉하다 꽤히 승낙하였다. 이날 이산해는 삼촌 토정을 찾아갔다.

"숙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때쯤 출세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토정이 대답했다.

"지금 어늬 나이보다 조금 젊어서 재상에 앉을 것이니 두고 보아라."

토정의 말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과연 38세에 재상이 되었다. 이 재상이 바로 저 유명한 문익공 이덕형인 것이다.

이는 물론 민화이지만 토정선생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아마도 나의 판단으로는 의로운 자는 하늘이 알아보고 그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천리안을 내리셨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본다. 혹 나도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게도 선견지명이 있어 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미소를 띄워본다.

이지함선생은 포천에서 아산현감으로 전임된 것을 무척 기뻐했다. 누구보다도 기뻐한 것은 토정의 부인이었다.

"영감, 아산은 제 친정이며 제가 자란 곳이 아녜니까!" 그렇게 부인은 기뻐했다. 그러나 토정은

"내가 아산으로 가게된 것은 좋아하는 것은 그곳에 바다가 있어 백성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오! 그런데 임자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때문이오?"

"지금까지 고생만하고 딸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영감이 현감이 되셨으니 앞으로는 큰소리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대답이었다. 그러자 토정은

"임자가 그런 호사스러운 생각이 있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난 아산현감을 그만 두겠소."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일이 이쯤되고 보니 남편의 성품을 잘 아는 부인은

"좁은 소견에 그만.....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 이때서야 비로소 토정은 "사또 행세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러 가는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토정이 아산에 도착했을때는 점심때가 가까웠으므로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식사준비로 부산하기 그지 없었다. 드디어 부임행사가 끝나고 마련해 두었던 큼직한 밥상이 들어왔다. 그야말로 상에는 진귀한 음식들로 가득했다.

"사또! 어서 드십시오." 옆에서 호들갑을 떨었다. 수저를 든 토정은 여러 가지 음식중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묘한 생선을 보고 맛을 보았다.

"아니, 이건!" 토정은 첫입에 그냥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만큼 맛이 기가막힌 생선이므로 토정은 그맛에 반해 자꾸만 생선을 뜯었고 얼마못가 다 먹어 치우고 말았다. 한참 먹다가 토정은 그제서야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이 생선이름이 무엇인고?" 하고 물었다. 그러자 이방이

"예, 그것은 영인 포구 저수지에서 잡히는 것인데, 아주 희귀합니다요. 그래서 이 고기를 잡지못하도록 항상 포줄을 시켜 감독하고 있죠." 이렇게 대답했다.

토정은 이 말에 얼굴빛을 고치며

"그래 그 전 현감들도 기 고기를 좋아 했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형방이

"좋아하구 말구요. 그래서 아무나 잡지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기는 잡기가 까다로와서 일류 어부들을 동원시켜야 합니다. 사또만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드시는 상에 올릴때에는 많은 어부들이 며칠 애를써야 겨우 몇마리 잡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도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신이나서 말했다. 토정은 다시 이방을 향해

"그래 이 고을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다.

"예, 불평이야 큼니다만 감히 사또 어른께서 드시고 나라에 진상하는데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과념하지 마십시오." 이방의 말을 들은 토정은 다시

"그래 그 저수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다.

"예, 2천평가량 됩니다." 호방이 대답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던 토정은 밥상을 물린 후 "여봐라" 하고 큰 소리로 이속들을 부른 후 "내일부터 영인에 있는 저수지를 전 동민이 나서서 매꾸도록 해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자 옆에 쪼그리고 앉았던 이방이

"아니, 사또어른 그렇게 되면 그 진귀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궁중에 진상도 못하고..... 어찌실려고 저수지를 메꾸라 하십니까" 하고 지껄였다. 호방은 ""그것도 어제 오늘에 생긴 저수지도 아니고 아주 옛날옛적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하필 오늘에 와서 메꾸시려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어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그러자 토정은

"속히 영민 지방에 부역형을 내려 모두 나서서 저수지를 깨끗이 메꾸도록 해라." 하고 되풀이하여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토정은

"궁중에 맛좋은 고기를 진상하고 사또의 밥반찬을 위해 어부들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처리에 어긋난다. 어부들도 같은 백성이다. 하물며 고기 몇 마리 때문에 백성을 괴롭혀서야 어찌 목민관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나서 다시 말하기를

"그 연못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다음에 또 사또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백성을 괴롭힐지 모른다. 그래서 아예 고기가 살지 못하도록 연못을 없애야 한다. 그 연못을 매꾸으로서 생기는 땅은 영인골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똑같이 나눠주도록 해라." 하고 지시했다.

이렇게 토정의 단호한 지시가 떨어지자 그 이상 아무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잠잠할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영인저수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즉기 메꾸어지기 시작했다. 토정은 직접 현장에 나가 매립작업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여 생긴땅은 여러분의 땅이니 어서들 흙을 운반하십시오." 하고 고을 백성을 격려하니 그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사또님, 앞으로는 연못을 지키지 않아도 되겠군요. 이제 죽을고생 하면서 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겠군요. 새로 땅이 생겨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들의 신세를 복지않아 좋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환성을 올렸다. 토정은 자신이 내린 결단이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흐뭇했다. 토정은 약속대로 저수지의 매립공사다 끝나자 그것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의 괴로움도 덜어주고 농토도 늘려준 것이 되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하였던가, 토정선생의 이러한 선체에는 분명 하늘도 감동하였으리라. 이같이 우리에게 훌륭한 사상에 살았던 조상이 많다. 그러나 이를 그저 이야기로만 흘린다면 그들의 공적이나 위대한 사상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는 조상들의 공적과 사상들이 헛되지 않도록 옳은 삶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여 그 옳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 토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해 평복으로 갈아입고 거리를 산책했었다. 그런데 토정은 아산지방에 술집이 많은 것을 보고 새삼 크게 놀랐다. 그래서 옆의 하인에게

"도대체 이곳에 술집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다. 하인은

"원래 이곳은 온천이 있어 세종대왕도 다녀가셨지만 외지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술집이 많습니다. 그들은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투전도 벌여집니다." 하고 대답했다. 하인이 이렇게 말한 순간 갑자기

"불이야!" 하는 외침이 들리고 바로 등 뒤에서 불길의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인이

"아, 저집이 아산에서 제일 큰 기생집입니다." 이윽고 알몸이된 젊은 남녀가 불속에서 뛰어나오며

"사람살려요! 사람살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저 여자는 이집 제일의 기생 매월인데 저 남자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인이 말했다.

불길은 점차 치솟아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고 사방에서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 듯 나서서 불을 끄려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어쩌서 저 사람들은 불구경만 하고 불끄 생각은 없느냐?" 토정이 이렇게 묻자 하인은

"모두가 미워하는 집인데 누가 불을 끄려하겠습니까?"

"미워할 미유라도 있는가?" 토정이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미워하다마다요. 이웃집들은 끼니를 거르고 잠이라도 자려하면 방새도록 풍악을 울려대기가 일쑤고 저놈의 집 기생들이 이 골의 남자들을 다 흘리는 바람에 이 지방 부녀자들을 얼마나 울리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토정은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었다.

"오죽이나 백성들이 술집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으면 불이 나도 꺼주지 않는가!"

그런데 이튿날, 토정에게 형방이 말하기를 어제밤 화재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어느 여인에게 의한 불이었다고 아뢰었다. 어느 여인이 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자, 그 기생집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었다.

토정은 일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술집의 병폐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검거된 여인을 대령토록 하였다. 곧이어 나졸들이 한 젊은 여인을 포승에 묶어 끌고 왔다.

"고개를 들라." 토정이 위엄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불을 질렀느냐?"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히지 않았으면 아산골의 기생집은 모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고 그 여인은 말하는 것이었다.

"허허, 망측한 것! 투기가 너무 심하구나." 토정이 혀를 찼다.

"사또, 그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저희집에는 팔십노모가 병환에 계신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밤낮 기생집에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집으로 찾으러가면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사또 나라아팍이 평정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자가 허다한데 어찌 이~런 망측스러운일이 연일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이같은 일은 비단 저같은 계집만이 아니고 지아비를 둔 모든 여인네들이 한결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야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만은 사또 어른께서 이런 병폐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여인의 말은 아주 조리있고 진실된 것이었다.

곡간에 쌀이 있는 집의 사내라면 으레 기생집에서 세월을 보내고 특히 노모가 병환으로 위독해도 나 몰라라 하고 돌봐주지도 않는 남편, 그 남편의 타락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봉면만 당해야 했던 여인의 마음..... 그리하여 그 기생집에 불을 지른 어쩔수 없는 분노, 토정은 이 여인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래도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생각에 잠겼던 토정은

"여봐라! 이 여자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고 명령하였다. 곤장 20대라는 말에 형방도 놀라고 주위사람들도 놀라 수근거렸다. 형방은 혹시 토정이 법을 잘 모르나 싶어

"사또, 곤장 20대라뇨?" 이건....." 하고 말을 하려했다. 그러자 토정은 "자네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은 알고 있다. 이 여자에게는 곤장 20대로 충분하니 어서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고 명령하였다. 여인은 감복해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도 토정의 판결에 대한 참뜻을 알고 명판결이라 흐뭇해 했다.

재판이 끝난 후 토정은 기생 명부를 가져오게 하여 살펴보니, 기적에 올라있는 기생은 불

과 10여명도 못되었고 아산지방에 득실거리는 기생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명령을 내려 기적에 오르지 않은 기생을 모두 쫓아내고 말았다. 그래서 마침내 '타락의 골' 아산은 토정의 단호한 결단으로 질서가 잡히고 풍기도 정화되어 백성의 환호를 받게 되었다.

기생집 방화사건 재판 이후로 토정의 인기는 높아져 재판이 끊이질 않았다.

하루는 한 부자가 가난한 농부를 끌고 동헌에 나타나서 농부의 소가 자기밭의 배추를 50 포기나 먹었다며 도둑이하 몰아세워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부자가 이야기 하는 동안 그 농부는 벌벌 떨고만 있었다. 부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토정은 배추를 찾게해 주겠다고 말했다. 농부는 기가 죽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토정은 그 소를 끌고 오라고 하였다.

그 가난한 농부는 그의 전 재산인 소를 뺏앗기게 되나 싶어 더욱 초조해 하였다. 그런데 토정은 부자의 손에 칼을 돌려주며 소의 배에서 배추를 꺼내가되 소를 다시 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고보니 어쩔 수 없었던지 그 부자는 칼을 놓고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가난한 농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숨처럼 아끼던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토정은 어디까지나 가난한 사람의 편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들이다. 약한자의 입장에서 그를 안타까와하고 이지함선생의 높은 뜻을 받아 우리도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1576년(선조 9년)새해. 토정은 일을 계획하였다. 어떻게 아산지방에 득실거리는 거지와 빈민을 없애야 하는 것이었다. 그해 2월 이방, 호방, 형방등 관속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었다.

"내가 어려서 아산으로 장가를 왔는데 첫발밤을 겪고 아침산책을 하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느니라. 그때 들샘말 입구 다리 밑엘 지나는데 다리밑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걸인들이 너무 추워서 그렇게 떨며 신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만 입고 있던 솜옷을 벗어주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전 나는 우연히 그 다리밑을 지나다가 기생들도 모두 쫓아냈는데....., 그까짓 일이라면 저에게 말기시지요. 열흘안에 모두 몰아낼테니 말입니다." 하고 나섰다.

다른 사람들도 그까짓 걸인을 없애는 것이야 기생들 몰아내기보다 훨씬 쉬운 일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그러나 토정은 "내가 걸인을 없애자는 것은 평민과 같이 만들자는 것이며 영세민들도 그와 같이 잘살게 하자는 것이며 걸인들이 집을 찾고 농토를 갖게 되면 자연히 아산에는 걸인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는 고을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현감 직속으로 "걸인청"을 설치하도록 명하고 장령의 임무는 호방에게 맡겼다. 그러나 호방은 "하지만 그 많은 걸인을 수용할 건물도 없을뿐더러 먹여살릴 재정도 없습니다." 하며 걱정했다. 토정은

"우리 걸인청을 새로짓지 말고 조세창고를 깨끗이 치우고 수리하여 금년 1년동안만 먹여살린다면 다음 문제는 걱정할 것 없다. 우선 관속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모두 걸인청소유로 할 것이다. 토정은 '걸인청'일 이후 훈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가만히 앉혀놓고 먹여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니 명심해라.

첫째, 노인층은 편을 짜서 짚신을 만들어라. 만든 짚신은 수만큼 현청에서 모두 사들일 것이며 그것을 서울로 가져다 팔 것이다. 짚신만든 수만큼 보수를 지급할 터이니 그 돈으로 장차 자립밀천으로 삼도록 하라.

둘째, 젊은층은 농토에 농사를 짓고 수확량의 2할은 현청에 바치고 나머지는 걸인청의 식량으로 삼고 그러고도 남으면 역시 자립밀천으로 삼도록 하라." 그러자 한 사람이 자신은 짚신을 삼을줄도 모르고 농사지을줄도 모른다하니 그런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다들 작업에 드어갔다.

특히 고기잡는 배는 토정이 직접 고안하여 먼 항해에도 안전을 기했다.

걸인청은 번창하고 기금도 크게 늘었다.

토정은 이처럼 걸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아산 지방을 위해 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사람들도 차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2년후에는 독자적으로 걸인청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3년후에는 자립하여 걸인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토정은 마을길을 넓힌다던가 하천정리 작업을 하도록 했으며 모냐기와 벼베기등 일손이 모자란 농가를 돕도록 했다. 이런 의미에서 토정 이지함은 오늘날 벌이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선구자였다.

하루는 걸인청을 순시하다가 모두들 열심히 짚신을 만들며 일하고 있는데, 오직 두 사람만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토정은 자신의 뜻을 모르고 놀고 있는 것을 볼 때 화

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께심하다 생각하여 당장 아산밖으로 추방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그 두사람은 토정에게 용서를 빌며 더 있게 해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게으름은 제일 큰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일이 있은 후 부터 걸인청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부지런히 일하게 되었으며 토정의 단오한 결단은 다시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런데 토정은 그를 죽이려다 실패한 적이 있는 전날 자신의 목숨을 모렸던 그 하인을 불렀다. 하인은 혹시 지난번 자신이 토정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일 때문에 부를나가 싶어

"사또님, 여기 선네 대령 하였습니다." 하고 벌벌 떨었다. 토정은 잠시 하인의 거동을 살핀 뒤 "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며 밖으로 나갔다. 가마도 대령하기를 거부하며 마당에 있는 망을 타고 아무말 없이 홍성쪽으로 달렸다. 정말 죄를 지은 하인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다. 공연히 겁에 질려 불안해 하면서 산을 오르는 토정을 따랐다.

"사또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온 하인이 더 참질 못하고 입을 열었다. "사또가 하는 일에 감히 네가 무얼하겠다고 참견이냐?" 토정은 핀잔을 했다. "그래도 산전꺼서 하시는 일을 선네가 좀 알아서 나뉘는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알고 싶으냐?" "알고 싶고 말구요, 사또님."

"내가 죽을자리, 묻힐 자리를 찾는 중이다. 내 몸이야 건강하나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많으니 오래살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니 이야말로 토정을 죽이려 했던 하인으로서는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다. '사또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아찔했다. 그런데다 토정은

"가능하면 좀 더 살아아서 왜적의 침입을 막아보려 하는데 늘 내곁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단 말야." 하는 것이었다.

하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토정의 발앞에 엎드려 잘못을 빌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토정이 이 하인을 믿는 것이야 말로 큰 실책이 되고 말았다.

토정이 댔던 말을 역원에게 말기고 하인과 함께 걸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걷는 것이 아니고 축지법에 의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하인은 물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걷는줄 알았다. 당도한 곳이 한라산 꼭대기였다.

"자 다 왔구나" 하고는 "저 바위를 들어보아라, 그리고 그 밑을 파헤쳐 보아라." 하고 하인에게 말했다. 땅속에서 항아리가 하나 있었다. 그 속에는 휘황찬란한 보석이 들어 있었다.

하인은 놀란 얼굴이 되어 토정을 바라보니 도로 물어두라고 했다. 토정은 "이 보물은 훗날 나라의 제정이 얼룩게 되거나 변고가 생길 때 쓰려고 비축한 것이니라. 너도 절대 이것에 대해서 입을 열면 안된다." 그러자 하인은 "그러면 사또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 많은 보물을 장만했냐는 것이냐?" 이걸 내가 젊었을 때 제주도와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는데 그때 수집해다 숨겨놓은 것이다. 자 그만했으면 모든 것을 다 안셈이니 이제 내려가자." 하고 산을 내려와 아산으로 갔다. 돌아온 토정은 이번에는 개간할 수 있는 구릉지나 야산을 물색했다. 그리고 호방을 불러

"이제 아산에는 걸인이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직도 많다. 그러니 지금부터 경작지가 열마지기 미만인 농가를 세밀히 조사하라." 고 지시했다. 이렇게 하여 조사한 농가는 1천3백호나 되었다. 그래서 토정은 걸인청에서 경작하던 농경지의 반을 영세 농가에게 분배하였다. 그리고 야산과 구릉지를 개간하도록 시켰다. 이렇게하여 아산일대에는 야산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가난한 농민들은 벅찬 꿈을 안고 열심히 산을 일구었다. 그리고 당진쪽에 성하나를 발견하여 그곳에 참외, 호박, 옥수수 등을 심게하고 흉년이 들은해에는 그것을 식량으로 대치했다. 그래서 그해는 워낙 심한 흉년이었으므로 토정은 배에다 토산품을 싣고 중국과 제주도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여다 식량으로 바꾸어 책성에게 풀었다. 그래서 아산지방민들만은 그 해의 심각한 흉년을 무사히 넘겼다. 사실 그때 다른 지방에서는 흉년으로 식량 파동이 심각했으며 곳곳에서 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현실속에 뛰어들어 해결하려 했던 토정이지만 흉년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만든 무역선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지금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 해가 바뀌어 1578년(선조 11년)이 되자 웬지 토정은 자신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토정은 자신이 묻힐 자리를 물색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오천 앞바다가 굽어보이는 그의 묘소 자리였다. 이와같이 자신의 운명 앞에 모든 것을 빈틈없이 정리해 가면서 아산 백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던 토정선생은 마침내 간악한 일개 아전의 마수에 의해 독살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의 유해는 생전에 미리 잡아두었던 명당에 간소하게 장례를 치루었고 그 뒤 나라에서는 그의 학술과 덕망을 기리어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문강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아산고를 백성들은 그의

은혜에 감사하여 "토정선생 인화 영모비"를 세우고 길이길이 그 유덕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토정선생의 업적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길이 우리의 앞날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사회 새풍토 건설을 위해 열성있는 생활로 일관되어야겠다. 이지함, 그분은 우리곁에 살아 계시지 않으나 우리는 언제까지 그분의 숨결을 곁에서 느끼며 살아가리라.

[8] 이 하 응

신창국민학교 교정에는 흥선대원군이 세운 척화비가 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 고종 초기의 집권자이며 성명은 이하응, 호는 석과 고종의 아버지다. 철종(1893)이 후사없이 죽자 조선대와의 일계에 의해 그의 둘째 아들 명복을 왕위에 앉히고 자기는 섭정을 보게 되었다. 왕의 부친으로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오래 쌓여온 폐단을 일소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과단성 있는 개혁을 단행, 우선 안동김씨 일족을 세도에서 몰아내고 악덕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시책으로 일반 평민에게만 군포를 호포라 하여 양반에게도 과하였으며 또 종래의 한국제도를 사창제도로 고치고 관리의 부정을 막았다.

이밖에도 법전의 완비, 정권과 군권의 분리, 의복제도의 개량등 불만한 정치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반면 경복궁 재건으로 인한 무리한 과세등으로 경제계를 혼란케하고 천주교를 탄압하여 무고한 백성과 외국인 선교사를 죽임으로서 백성의 원성을 사고 대외적인 감정을 악화시켰다.

또 세계정세에 어두워 쇄국정책을 쓰므로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일으켰는데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졌는데 신창국민학교에 그 중 하나가 세워졌다.

이 척화비가 세워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병인작신미립'이라는 글로 보아 병인, 신미양요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척화비의 크기는 세로 105.5cm, 가로 41.5cm로 직사각형이다. 비의 양측면과 뒷면은 새겨져 있지 않고 전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로글씨로 써있다.

洋夷

이 쇄국정책으로 인해 서양문화수입에 지장을 가져온 것 등은 씻지 못할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한 국민의 원성과 유학자의 불만이 높아졌을 때 민비는 고종을 조종하여 최익현의 대원군 탄핵의 상소가 올라온 것을 계기로 그를 정권에서 물러나게 하니 꼭 집권 10년만의 일이었다.

그 후 대원군은 민비를 비롯한 민씨일파와 암투를 계속하여 정치표면에 나선적도 있지만 끝내 정권을 다시 잡지 못했다.

대우너군의 쇄국정책은 대원군 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 척화비를 봄으로써 외국의 문물을 무조건 배타만 할 것이 아니라 옳은 것만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는 주체성을 가져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이 척화비가 공공교롭게도 교정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돌아보고 현실을 찾아보게 하는 무인의 지시를 하는 것만 같아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게 한다.

[9] 임 명 제

바람이 유난히도 불던 1911년 3월 3일 아산군 염치에서 태어나셨다.

임명제의 휘는 영상, 자는 수일, 호는 매사였다.

아버지 화자는 학식과 덕망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이 많았다. 추위에 땀덜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는 못입고 못 먹더라도 도와주는 성미였다.

어머니는 부사의 따님이셨다. 임명제는 이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커가면서 복의가 단정했고 남자답고 의젓하게 행동했으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크게될 인물이라며 칭송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는 효자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흔히 사람들의 말속엔 효자도 결혼을 하여 아내를 얻게 되면 불효자가 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는 결혼한 후에도 부인과 함께 더욱더 잘 모셨다.

그는 1935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마치고 충청남도 행정직에 근무했다. 1950년에 연기군수를 지내시고 1960년에 천안구수를 역임하시는 동안 그는 모든일에 충실했고 청렴결백하였다. 늘 국민의 입장이 되어 무엇이든 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통령 훈장까지 받으신

바가있다.

그가 아산군 군수로 있었을 때다. 6.25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도로는 손수레가 왔다갔다 할 정도였다. 그가 염치에 좀 가신다고 했다. 염치면민들은 군수가 오신다고 몹시 좋아하며 들뜬 기분들이었다. 사람들은 군수가 오시면 이 도로좀 어떻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염치에 오셨다. 그는 새삼 놀랐다

"도로가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군. 아 면민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는 즉시 돌아왔다. 생각한 끝에 도로를 넓히라고 했다. 면민들은 하루이틀씩 번갈아가며 이 도로 사업에 나갔다. 그 대가까지 나왔다. 쪼들기는 판에 사람들은 다행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흡족해 했다. 도로가 넓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도 그 길을 걷노라면 그분의 노고가 새삼 생각이 나곤한다. 이렇게 그는 이곳뿐만 아니라 그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면 개의치 않고 다해 냈다. 그는 관계에서 은퇴한 뒤에도 그의 고향에 돌아와 지방산업 전체의 장으로 향토개발에 심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야산에 과실나무를 심고 이왕에 심는 것 수확이 있는 과실 유실수를 심게 했다. 스탁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병을 얻게 되고 좋은 약은 다 써보고 큰 병원도 찾아보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너무 서러워 말아라. 나이가 들었으니 죽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다만 아쉬운 일이 있다면 우리 향토 개발에 할 일이 많은데 다 못하고 가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다." 라고 했다.

그는 1972년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자손들은 부친을 물줄고 공기맑은 아산군 염치면 동정리에 그를 모셨다.

난 그분의 묘소를 지나갈때마다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잘 다져놓은 우리고장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어찌 소홀이 다룰 수 있겠는가?

[10] 임 수 겸

자는 익지, 호는 갈곡, 태종 9년 기축 10월 18일생. 전라감사, 성균관 사성, 호조참의, 부제학등 많은 관직을 거쳤다.

이 분은 조정에서 호조참의한 벼슬을 하시던 중 아산군 도고면 화전리 1구에 내려오셔서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사시고 계시던 중 임금께서 빨리 조정으로 돌아와 정사를 돌보라는 교지를 말과 함께 보내시었다.

조정으로 돌아가 조정에서 일하고 계셨을 때의 일이다.

사랑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절친한 친구 하나가 찾아왔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밤 도둑 한명이 담을 넘어 들어왔다가 하인들에게 잡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갈곡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아 직접 도둑을 만나보기로 했다.

갈곡은 도둑을 만나 무슨일로 하여 남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느냐 하고 도둑에게 묻자 도둑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아랫마을 사는 가난한 집의 자식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병환이 나서서 쌀밥과 고기를 잡숫고 싶다고 하셔서 구할길이 없기에 그만..... 하고는 울기 시작했다.

문득 갈곡은 도둑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 도둑이 돌아간 뒤 갈곡은 하인을 시켜 쌀 몇 가마니와 고기를 보내주었다.

그 뒤 도둑이 찾아와 다시는 도둑질을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의 소행은 나쁘지만 부모를 위하는 효심에는 갈곡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으며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 정신은 위정자이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충에 바탕을 둔 애민정신이요 동포애가 아닌가 한다. 효심에 찬 도둑을 벌하여 그 가족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며 본인에게 더 큰 불효를 짓게 하기보다는 그 한사람을 도와주어 한 가족을 구하며 효도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분의 도량이며 도둑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벌보다 용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11] 임 수 영

이조 선조때에 나라에 큰별이 나타났다.

산골짜기의 오두막집에서 옥동자가 태어난 것이다. 자라면서 아이들 보다 특출히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어 다른사람보다 빠르게 선조 34년 26세에 진사에 올랐다.

진사에 있으면서도 이론이 뛰어나고 성격이 곧고 정직하여 동료들이 경원했다. 성균관에 10년간 있으면서도 뛰어난 이론과 성격이 곧고 정직한 까닭에 유소문은 대부분 임숙영 진사가 썼다.

성균관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남의 모범이 되는 일을 해서 승무원 정사에 이르렀다.

승무원 정사로 있으면서도 벼슬에 대한 탐욕이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생활하던중 광해군 4년(1612) 승무원 주서가 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는 돕듯이 그의 청빈한 생활을 보기라도 하듯 주서가 된 것이다.

그 다음해에 영창대군의 모욕이 일어나 벼슬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자기수양의 길을 걸으려 했으나 잔당의 무고로 유배됐고, 인조반정후에 예문관 검열에 올랐다.

그 후로도 그는 선비로서 수양하여 곧 홍문관 정사를 거쳐 박사에 올랐다. 박사에 올라 그의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찼다. 그러던중 그는 부수찬을 거쳐 사헌부 지평등을 역임했다. 사헌부 지평에 있으면서도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여 그 후에 부제학에 추증하고 관주 구양서원에 배향되었다. 그는 인조때의 문신이었고 자는 무숙, 호는 소암, 본관은 풍천이었다.

욕심이 없는 청빈한 생활과 남을 헐뜯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다하는 그의 생활태도와 나라와 임금을 위하는 충성된 마음은 길이 여러사람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며 그의 정직함은 우리모두의 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12] 장 서

충남 온양에서 약 16km 들어가면 인주면 문방리에 "장장군묘"라는 큰 무덤이 있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컫는 우리나라에 공자가 일찍이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뒤로부터 여느나라와는 달리 중국 인사들이 기회있는대로 많이 동쪽으로 건너와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송나라때 금좌광록대부 신경위 대장군 장공서가 그 중의 한 분이었다.

공은 한참 날뛰고 있는 금호의 난을 피해서 고려로 내려와 공충도 아산에 자리를 잡고 살았으므로 아산군이라는 봉작까지 실려있으나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또 대대로 물려오는 장씨의 세보중에도 다만 무덤이 본군 서면 영인산 문지리 뒷산에 있는데 무덤앞에는 끝임없이 물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맑은 물 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서있으며 봉분 또한 여느 무덤보다 컸으므로 '장릉'이라 일컬었다는 기록만 있다. 그러나 이 묘소는 중세때에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생의 연애마저 알 수 없게 된다.

지난 임신년(1932년)에야 비로소 후손들이 묘소가 있었던 장소를 찾아 다시 무덤을 수축할 것을 의논하고 아산에 이르니 이미 그 장릉은 동네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 올 뿐 그 위에는 신당이 세워져 있어서 '장장군 신사'라 불리워 지고 있었다.

그 뒤 몇 년이 지난 정미년에 그 후손이 돈을 모아 그 무덤 주위의 산과 밭을 사고 신당을 헐어버리고 무덤을 다시 쌓아 올렸다.

동네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적에 이미 그 묘비가 있었던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사적을 인멸하기 위해 바다 한 가운데에 던져버렸다고 전한다.

중국에서 건너와 아산땅에 자리잡고 아름다운 강산으로 꾸미고 훌륭한 후손을 기른 아산장씨의 지조인 장서를 찬양한 이가원 선생의 시조가 있다.

조국을 버리시고 동으로 오신뜻은

오랑캐 창궐하니 차마보지 못할지라

나라에 봉작받고 씨족에는 시조시라

무덤이 신당되고 신당이 무덤되니

홍폐의 느낌이야 없을줄 있으랴만

어진 후에 예 있으니 길이 수호 하오리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이처럼 동경하여 먼 중국으로부터 내려와 뿌리를 내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좋은 곳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민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 새삼 우리땅의 동맹이 하나 풀 한포기가 얼마나 정겹게 보이는지 모른다.

나라는 망해도 역사는 영원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허리가 잘려 두동강이가 나버렸지만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만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훌륭하게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 나라의 얼굴인 역사를 올바르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옛것을 익히고 나아가서는 새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으로 이와 같은 일화를 국민으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역사를 향한 힘찬 도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3] 정 두 경

충남 아산군 온양이 본관이신 그는 일찍이 문장에 무척 뛰어났다 한다.

그의 집은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인 곳의 아늑한 곳에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꿈에, 높은 하늘에 달을 정도로 높은 산으로부터 한줄기 빛이 뻗치더니 자신의 품으로 빛이 스며들어 깜짝놀라 꿈을 깨어 남편에게 이를 아뢰자 줄은 징조라 하며 잠시 기다려보자 하였다. 그 후로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으니 바로 '정두경'이시거. 외할아버지께서 어췌 그를 보시자 허허 웃으며 앞으로 큰 인물이 될꺼라 하셨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문장에 뛰어났다 하는데 그도 역시 자라면서 그 영특함이 어찌나 뛰어났는지 천자를 단숨에 깨우치고는 방안에만 틀어박혀 책만을 가까이 하니 밤에도 그의 방엔 불이 꺼질줄을 몰랐다. 그의 어머니께서 너무 책만 가까이하여 건강이 나쁠까 염려, 밖에 나가서 놀다오라 이르면 공손히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고작 아름다운 산천을 휘돌러보며 한시조 읊고는 어느새인지 방안에 들어와 살피니, 밖에서 놀고 있을 줄 알았던 그가 또 책을 읽음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놀으라는 말을 일절 삼갔다.

그의 아버지도 그가 너무 책에만 집착하여 세상일에 소홀이 할까 두려워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권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형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드매 외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도 같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천자문을 단숨에 깨우쳐 외할아버지를 놀라게 했다.

하루는 외할아버지께서 뜰을 거닐다가 어디선가 논어를 읽는 소리가 들리매 그의 형이 읽는가 하고 너무 낭랑하게 뜻을 또렷이 풀이하기에 감복하여 칭찬해 주려 방문을 열고보니 그의 형이 아닌 어린 손자의 소리였기에 그를 번쩍 안아 올리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세월이 지나 그도 장성하여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게 되었다. 하루는 한양에 이르는 중, 한 주막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마침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는 선비가 몇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선비가 탄식하여 이르길, 과거시험에 있어서도 글재주만 갖고는 어렵다면 흑간의 선비는 시험관에게 뇌물을 주고 급제한다는 사례가 있다 일러 주었다. 그 선비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데 부정한 선비로 인해 과거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반이 되어 내일 일찍 떠나기 위해 잠을 청했으나 그 선비의 말이 떠올라 잠이 안 왔다.

"이 부패된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고는 과거를 안 볼까 생각하였다가, 이왕 보기로 하였으니 한양에 일단 가기로 작정, 이튿날 일찍 그 선비들과 같이 한양으로 향했다.

그 선비와 문장도 겨루어 보며 길을 걸으니 그 선비도 문장에 꽤 능함을 보고 아무리 세상에 부정이 있다하여도 이번만은 꼭 급제하리라 믿었다.

드디어 많은 선비가 모인 가운데 과거가 열렸다. 수월하게 과거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니 그는 뜻밖에도 장원으로 급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선비의 이름은 찾을수가 없었다. 이에 한탄하여 그의 아품을 어찌두고 제몸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나하여 후에 홍문관제학, 예조참판등 여러높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는 정계에는 큰 빛을 발하진 못하였으나 그의 뛰어난 시문은 호방한 성격과 함께 길이 역사에 남으리라 본다.

또한 정두경의 어린시절을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에 큰 본보기가 된다.

그 시대에 비하면 책도 많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은 어떠한가? 생각해 본다. 자신의 한 몸도 생각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차 국가와 사회를 일할 수 있단 말인가?

[14] 정 렬

자는 사결, 호는 북창이요 온양인이며 순봉의 아들이다. 품성이나 인격등 모든 면에서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심리철학에 대한수양을 쌓고 배우기에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활하는 면에서나 행위에는 언제나 실수란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항상 정의로운 입장에 서서 모든일의 옳고 그름과 사리판단에도 밝았을 뿐더러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

그가 14살 되던 해였다. 정렬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중국에 건너갔다. 난생처음 가보는곳이라 그런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어느 청소년이 글을 읊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동국의 진남자라 하는것이였다. 이에 북창이 곧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국에 미장부라 응답했다. 그랬더니 그 청금소년이 무색하여

물러갔다 한다.

유구국 사람들이 이상한 서기를 바라보며 찾아와 재배하며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 점치매 모년 모월 모일에 중국에 가면 당연히 진인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금일은 즉 그 날이라 그대가 참 그 사람이라고 하며 기뻐 학설을 강론하였다. 북창의 섬부관 학식은 천문, 지리, 의학, 복서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도 통달하리만큼 뛰어난 것이었으며 현상은 표일하여 구름에 뜬 학과 바람에 나르는 매와도 같았다.

각국의 내빈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아가 환영을 베푸니 목창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 보기도문 천인이라 칭찬 받았다.

그는 19세 때에 진사벼슬에 올랐으나 다시 과거에 뜻이 없어 양구 궤라리에 거처하였다. 중종조 때에 포천현감에 부임하였다가 즉시 치사함 후에 세로에 뜻이 없어 은둔생활로 묵인, 10년만에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 나는 이 글을 쓰고 나서 정북창 선생의 슬기와 그 지혜로운 말솜씨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모든일에 앞장서서 노력하며 이 나라의 곧고 바른 뿌리가 설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몇번을 거듭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해 본다.

한국의 뿌리가 되겠노라고.....

[15]정 만 석

조선말기의 문신이며 이 분은 임금의 잘못을 감하는 사간원으로 계시면서 임금께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며 책임감을 갖고 모든 일에 충실하신 분이셨다. 그 중에서도 여러 고을을 암행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파악하고 탐관오리를 물리치셨다.

한번은 이 분이 동래부사로 계실 때 정직하지 못한 관리들이 함부로 일본의 뇌물을 받고 통신문서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것을 알고 이 분은 적은 수의 부하를 이끌고 몇날 몇일을 추격하고 탐색한 끝에 못된 탐관오리들을 처벌하여 올바른 마음을 표하셨다 한다.

서부지방을 차별한다고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가 난을 일으켜 민심을 어지럽히자 마침 평안도 외우사, 경감 진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어수선한 민심을 잘 수습하는등 마을 백성들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또 청나라를 다녀오신 뒤 병, 공, 이형조 판서를 지내셨고 우의정까지 오른분이지만 평범한 생활로 남의 본보기가 되시고 언제나 백성의 편에 서시어 이조망의 선비로서 대나무의 자화상 같으신 성품으로 지금까지도 기림 마음속에 남겨져야 할 분이다. 이 분의 호는 과재 본관 온양, 시호는 숙헌이며 1758년(영조 34년)에 태어나 1834년에(순조 34년) 많은 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

[16]조 이 숙

선생은 조선 중엽 서기 1616년 인조때에 출생하셨다.

본관은 양주요 자는 경휘이며 호는 달봉이다. 부친은 종가선 대부 조상우 선생이시고 출산은 아산이시다. 어려서부터 효자이신 아버지 시암 선생을 본받아 충성심이 강하고 또한 효성도 지극하셨다.

선생의 충성심의 한예로 1649년(인조 27년) 인조대왕께서 승하하시자 국상기간동안 채식만 하셨다. 이로 인하여 이듬해 병을 앓아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을 떠나신 후 대덕군 회덕면 사무소 앞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찬하시고 동준 송준열 선생이 쓴 '몰세 불망비'가 세워졌다.

그 후 60년 후에 충청도 유림대표 김석대등의 상소로 철비도 세워졌으나 애석하게도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종때는 선생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하고 또 정려를 내려 선생의 부친이신 시암 조상우 선생과 함께 온양읍 온천리 산 18번지에 잇달아 정문이 세워졌다. 묘소는 송악면 수곡리 산 125- 1에 있다.